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는 사람들

05/28/2023

미국에서는 옆에 사람이 재채기를 하면 “God Bless You” 라고 합니다. 일종의 예절입니다. 이것의 기원에 대해 찾아보니 첫째는 로마시대 기원설입니다. 로마시대에는 재채기를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아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God Bless You”를 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중세 유럽 기원설입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때 재채기를 초기 증상으로 여겨 “God Bless You”를 하며 건강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절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원설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예절법은 기원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인도네시아 선교여행을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와 방을 같이 사용하던 선교사님이 새벽 3시 경에 일찍 일어나 저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화장실 앞쪽 바닥에 앉아 강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핏 잠을 깬 제가 선교사님에게 책상에 앉아서 하라고 권했습니다. 책상에 앉자마자 그 선교사님이 재채기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God Bless You” 인사법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예절에 관한 연구에 보면, “God Bless You” 인사법은 기원보다 의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재채기를 한 사람이 미안해 하지 않도록 미리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여러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화를 빌며 인사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말로는 “평화”라고 번역하지만, “에이레네”는 <평화, 번영, 가장 복된 상태, 축복받은 상태>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은 각 집에 “축복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소서” 라고 흔히 쓰지만, 축복은 인간의 언어입니다. 축복(祝福)은 말그대로 풀어보면 “복을 빌다”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빌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야 합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해야 합니다. 재채기와 상관없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축복하는 - God Bless You 를 선언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코비드로 한동안 잊어버린 인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하나님) 복 가득하시기 바랍니다.”